

자료명	‘제5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 (비공개 행사)
엠바고	5월 22일(수)자 조간(통신, 인터넷 등은 5/21(화) 16:00부터)
문의처	ESG경영팀 윤철민 팀장(02-6050-3471), 김범준 과장(3475)

ESG 의무공시,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경제계 한 목소리

- 상의, 21일 ‘제5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 개최...국내 ESG 공시제도 관련 의견 교환
- 국내 20대 그룹.. ESG 공시의무화로 인한 혼란 줄이려면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하다는데 동의
- 김은경 회계기준원 실장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기반으로 공시제도 논의 본격 시작해야”
-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 “ESG 공시 불확실성 해소 위해 공시규제 로드맵 제시 필요”

최근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내 주요기업들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ESG 공시가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1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제5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 그룹 회의’ 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의견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경제계 대응역량 강화, 대정부 정책건의, 민관 소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국내 주요그룹과 은행 등 19개사가 가입해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강감찬 산업부 국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이용희 KSSB 부위원장,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 및 국내 20대 그룹과 주요 은행 ESG 담당임원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기반으로 공시제도 논의 본격 시작해야

첫 번째 발표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을 주제로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이 나섰다.

김 실장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다른 국제 기준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줄이고, 적용이 어려운 사항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도록 하였다” 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로 공시 대상 기업, 의무화 시기, Scope 3의 의무화 여부 및 시기, 법정 공시 여부 등 공시제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주요국 동향과 국내 상황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SG 공시 불확실성 해소 위해 공시규제 로드맵 제시 필요

두 번째 ‘ESG 공시제도 개선방향’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내외 ESG 규제 동향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공시규제 시점은 '27년 혹은 '28년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시규제 시점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Scope 3 등 우리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한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단계별 확대 로드맵을 제시하여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또한 김 소장은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협력업체들의 ESG정보도 취합해야 하는데 자금 및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DATA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며,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ESG 공시로 인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조언했다.

참석자들 “ESG 공시의무화로 인한 혼란 및 부담 줄이려면 충분한 준비기간 주어져야”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SG 공시의무화 도입시 상당한 혼란과 부담이 예상된다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시체계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이 ESG 공시를 하는데 있어 비용 부담, 자회사/협력사의 소극적 협조, 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며 “협력사 ESG경영수준 제고, 내부 공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야 공시의무화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참고	‘제5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 행사 개요(비공개)
----	------------------------------------

- 일시/장소 : 2024년 5월 21일(화요일), 16:00~18:00 / 상의회관 1층 EC Room
-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 참석자 :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강감찬 산업부 국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이용희 KSSB 부위원장,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 최원용 삼성전자 파트장, 남재인 SK SV위원회 부사장, 이혁노 현대차 상무, 김훈태 포스코홀딩스 상무, 하정재 GS칼텍스 부문장, 김진식 두산 상무, 오정화 아모레퍼시픽 상무, 최영호 대한항공 수석부장, 허남진 한화 부장, 김희열 KT 팀장, 김경남 KB금융지주 상무, 조정훈 신한금융그룹 본부장, 박상민 IBK기업은행 팀장 등
- 진행순서
 - 16:00~16:10 인사말씀(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위원장, 강감찬 산업부 국장)
 - 16:10~16:50 주제발표
 - 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실장)
 - ② ESG 공시제도 개선방향(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 16:50~17:55 토론(참석자 전원)
 - 17:55~18:00 마무리말씀(강감찬 산업부 국장)